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학은 이론 지향적이 아니라 실천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는 윤리학이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자의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 검토에 전념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가능성을 탐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실천적 규범을 통해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문제의 해결보다는 도덕 관행을 기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도덕 원리를 적용해 구체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둘째,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식품 관련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과 작업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보 기>

- ㄱ. 식품을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은 개인의 기호인가?
- ㄴ. 식품 생산 과정에서 동물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가?
- ㄷ. 식품 관련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 ㄹ. 윤리적인 성찰이 배제된 식품의 소비는 바람직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음악은 성현이 즐기는 바로서, 이것으로 민심을 선하게 인도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선왕이 예악(禮樂)으로 인도하면 백성이 화목해진다.
 을: 어떠한 예술가도 윤리적인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윤리적인 동정심이란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예술의 완벽함은 그 자체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 ① 갑은 예술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예술이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예술이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예술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예술에 미적인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본다.

4.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범죄자가 사형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노동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을: 사형을 결코 범법자 자신이나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 ①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야 하는 형벌인가?
- ② 사형은 살인범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벌인가?
- ③ 형벌은 공리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가?
- ④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인가?
- ⑤ 사형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형벌인가?

5. 표는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를 상대로 한 가상 설문 조사 결과이다.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질문	응답	
	예	아니요
죽음은 감각이 상실된 것이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가?	✓	
A		✓
B	✓	

< 보 기 >

- ㄱ. A: 죽음을 인간이 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아야 하는가?
- ㄴ. A: 죽음 이후에 인간은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가?
- ㄷ. B: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 ㄹ. B: 죽음은 내세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행정 및 경제 체계와 생활 세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시민이 공적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면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에서 시민이 이성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 ① 담론의 절차가 아니라 담론의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 ②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공론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③ 공론장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상황에서는 누구나 개인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합의된 규범은 개인의 이익에 부합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7.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며,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소가 갖는 힘은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즉시 불복종하는 행위이다.
- ③ 시민 불복종은 부정직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불공정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 ⑤ 시민 불복종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다.

8.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채용과 승진 등에 있어 여전히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우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성평등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의 실현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현재의 정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갑: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과 더불어 여성고용할당제와 같은 우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을: 아닙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성별이라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여 양성평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① 양성평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가?
- ②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해야 하는가?
- ③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은 필요한가?
-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 정의를 위해 필요한가?
- ⑤ 양성평등의 실현은 동등한 기회의 제공만으로 가능한가?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경계이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의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p> <p>을: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합리적 인격체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생명을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병: 대지는 토양, 식물, 동물의 회로를 거쳐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옳고, 그 반대라면 그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 기>

가. A: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나. B: 생명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다. C: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라. D: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나, 라
-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10.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게

지난 번 편지에서 자네가 궁금해 했던 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 시작이네. 만일 자네가 인(仁)을 바탕으로 ㉠을/를 다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천하가 교화될 것이니 어찌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 기>

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도리가 끝나는 것이다.
 나. 부모에게 사랑과 보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 덕행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때 완성되는 것이다.
 라. 물질적 봉양과 함께 정신적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11. 그림의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

최근 들어 인간의 사고력, 판단력, 다양한 경험 등을 습득한 인공지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이나 하기 힘들었던 일을 대신하는 동안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일을 함으로써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인간과 인공지능이 경쟁적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 ② 인간의 고유한 일까지 담당할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한다
- ③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 ④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 ⑤ 인간의 도덕성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분배는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 마땅한 상이 주어질 때 정의롭다.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질 때 분쟁과 불평이 생겨난다.</p> <p>을: 분배는 합리적 개인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할 때 정의롭다.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은 부의 획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p> <p>병: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확립될 때 정의롭다. 정형화된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보 기>

- ㄱ. A: 산술적 비례에 따른 때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가?
- ㄴ. B: 절차의 공정성으로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ㄷ. C: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는가?
- ㄹ. D: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선의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자체로 선하다. 지성, 용기, 결단성과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을: 선의지만으로는 사회적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다. 그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

- ① 갑은 좋은 결과를 의도한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 ② 을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동정심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집단의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이타성을 사회가 지향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와 달리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게 한다. 문화적 폭력은 언어, 예술, 종교, 도덕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특히 문화적 폭력은 모든 유형의 폭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 우리는 모든 폭력이 제거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는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된다.
- ②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 ③ 직접적 폭력이 제거되면 구조적 폭력도 저절로 제거된다.
- ④ 소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물리적 폭력의 사용은 정당하다.
- ⑤ 문화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15.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속적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聖]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을: 자연은 단순히 과학의 연구 대상일 뿐, 종교적 의미는 찾을 수 없다. 자연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으며,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보 기>

- ㄱ. 갑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ㄴ. 갑은 종교적 인간이 자연에서 성스러움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신을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과학으로 초자연적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너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도록 행위 하라.
(나)	장기 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이 결정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장기를 파는 것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장기 획득의 기회가 확대되고,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환자의 질병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 ① 장기 매매 여부는 최선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② 장기 매매는 사회적 유용성이 낮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환자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장기 매매만 허용해야 한다.
- ④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 장기 매매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⑤ 인간의 신체를 수단화하는 장기 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술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전략 시켜 스스로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윤리적 사유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윤리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위협에 대해 숙고해야 하므로 희망보다는 공포를 발견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추어야 할 책임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 ① 책임의 범위를 현대의 인간과 자연으로 한정해야 한다.
- ② 새로운 윤리는 예견할 수 있는 위협을 고려하여 도출해야 한다.
- ③ 행위의 의도만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④ 인류의 생존과 기술의 발전은 양립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 ⑤ 기술로 인한 미래의 해악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주함이란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되돌아 갈 수 있는 고유 공간을 가짐을 의미한다. 내적 공간에서 인간은 경계심을 내려놓고 안정과 평화를 느끼며 다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늑한 공간의 기본 형태는 보호하는 벽과 안전하게 해주는 지붕이 있는 집이다. 이렇듯 인간은 특정한 공간 안에 자신의 존재를 정착시키며, 그 공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갖들인다. 인간은 집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공간은 인간에게 나아감과 들어감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다.

- ① 거주 공간은 세상에 거주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 ② 거주 공간은 심신의 평온함을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③ 거주 공간은 참된 자신을 되찾는 내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 ④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열려 있지 않은 폐쇄적 공간이어야 한다.
- ⑤ 거주 공간은 위협적인 외부 세계와 구분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의로운 전쟁조차도 민간인의 살상과 같은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경악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또한 국가 공동체가 보장하는 삶을 위협하는 침략에 대해서도 맞서야 한다. 이러한 전쟁이 수행 과정에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투원과 민간인에 대한 구분의 원칙, 전쟁의 승리가 가져올 효과보다 부수적 손상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등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정의로운 전쟁에 앞서 전쟁 없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ㄴ. 국가 이익의 극대화는 전쟁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ㄷ.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ㄹ. 침략에 대한 방어 전쟁은 전쟁 수행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 한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을: 원조의 목적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어지는 행복감은 원조의 중요한 동기이다. 원조의 실천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① 갑: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 ② 갑: 원조는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해야 한다.
- ③ 을: 개인에게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④ 을: 원조 대상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빈곤국을 제외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평준화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